

‘복 짓는 공양’ 드세요

무료급식소 부산 ‘민들레밥집’ 채식단으로 바뀌 눈길



2005년 문을 연 ‘민들레밥집’은 전국 최초로 채식만으로 무료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채식이 웰빙 식단으로 떠오르는 있는 가운데 스님이 운영하는 무료급식소가 채식 식단만으로 급식을 실시하고 있어 관심을 끈다.

부산 동래와 사직동 두 곳에 문을 연 ‘민들레밥집’은 연중무휴 채식으로 무료급식을 하고 있다. 8월 21일에는 콩고기야채부

음, 야채전, 콩국, 김치, 가지나물 등 채식단으로 요리가 한창이었다.

‘민들레밥집’은 2005년 8월 사직동에 문을 열었다. 6개월 후 동래시장 내에 두 번째 ‘민들레밥집’을 연 이후 육류 요리를 포함한 식단으로 급식을 해왔다. 그러나 한 달 전 두타 스님이 결단을 내렸다. 채식이 건

식재료비 부담 늘었지만 어르신들 건강 위해 전환 “불살생 정신 배우는 기회”

최상의 공양을 어르신들에게 올리기 위해 두타 스님은 서면 지하도에서 하루 5시간 이상의 탁발을 한다. 처음 부산시청 앞에서 탁발을 할 때는 극심한 더위 때문에 물병을 얼려 가슴에 품고 있기도 했고 지금도 경찰에 쫓겨 다니거나 경찰서까지 연행되기도 했다. 그러나 스님은 탁발을 멈출 수 없다. 당장 민들레밥집을 찾는 120여명이 넘는 어르신들의 공양을 끊게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처음 무료급식을 시작했을 때는 봉사자를 구하지 못해 스님이 직접 밥과 요리를 하고 지금도 봉사자가 없는 명절 때도 급식소 문을 닫지 않고 스님이 직접 요리를 한다. 이처럼 정성을 다하는 스님의 모습에 감응을 받아 하나 둘 모여든 봉사자가 100여명. 이제 밥집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지만 급식으로 인연된 어르신들의 병원비, 보일러비, 도배 까지 챙기느라 꾸준한 경비가 늘어나고 있어 도움의 손길이 절실하다.

두타 스님은 “민들레밥집은 단순히 밥을 먹는 공간이 아니라 복 짓는 공간”이라고 정의했다. 스님은 “복을 짓는 공간에 동참하는 자원봉사자나 후원자들이 많아져서 더불어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수행의 공간으로 자리 잡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두타 스님은 자원봉사자들 스스로 채식에 대한 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채식을 실천하면서, 어르신들을 위한 공양을 올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9월 8일 오후 2시 동래 민들레밥집에서 채식 교육을 실시한다. 생령사랑채식실천협회 이승석 회장이 채식의 가치를 알리고 채식 요리도 선보이는 강연을 열 예정이다.

“민들레 흙씨가 멀리 날아가듯 민들레밥집이 전국적으로 퍼졌으면 한다”는 두타 스님은 “채식으로 하는 급식이 채식의 수행의 일부본으로 인식하고 실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051)558-2108 후원계좌:150031-52-137521(농협 예금주 남창현)

천미희 기자 mhicheon@buddhapia.com

지역불교 일구는 우바새



곽인철

마산 금강노인복지관 관장

1년 전 마산에서는 처음으로 문을 연 노인전문복지관인 금강노인복지관. 요즈음 이곳은 500여명이 넘는 어르신들로 붐빈다. 이용인원 50여명에서 500명이 라는 인원으로 늘어난 놀라운 변화의 중심에는 곽인철(41·법명 인성) 관장이 있다.

곽 관장은 금강노인복지관이 생기게 한 장본인이다. 타 지역에 비해 유난히 노인인구가 많은 마산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노인전문복지관을 선택했다. 생령사랑채식실천협회 이승석 회장이 채식의 가치를 알리고 채식 요리도 선보이는 강연을 열 예정이다.

있지만 곽 관장은 어린이 범죄와 청소년 수련회 지도교사로 더 일찍 불교와 인연을 맺었다. 큰스님 일대기, 부처님 가르침이 너무 좋아 일주일에 한권씩 불교서적을 사곤 했던 어린시절의 곽 관장에 불교는 물과 공기 같은 존재였다. 매주 일요일은 정인사 어린이법회를 위해 늘 바빴다. 일요일에 잡히는 집안 대소사, 친구들의 결혼식 참석은 염두도 못 냈다. 원망도 많이 들었다. 술 담배도 아이들에게 나쁜 영향을 준다는 생각으로 끊었다. 생활의 모든 기준이 어린이 포교로 기울던 셈이다.

“지금도 늘 ‘처음처럼’이라는 말을 최우명 삼아 어린이포교와 복지를 시작했던 첫 마음으로 살려고 해요. 시간이 갈수록 더 자신을 등 돌보 않고 부처님께 정진하라고 하셨던 부처님 말씀이 더 지중하게 다가옵니다.”

13년 복지현장 생생한 경험 학생들에 특강

불교와 복지 접목한 교양대학 설립 구상 중

“문수보살의 지혜를 얻기 위한 수행공간이 많지만, 보현보살의 행을 실천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곽 관장은 “복사를 할 수 있는 금강노인복지관이 복지들에게는 보살행을 실천하는 수행처가 아니겠느냐”고 자부했다.

곽 관장이 처음 복지를 시작한 것은 1994년. 마산중리종합복지관에서 총무과장으로 실무를 시작했다. 고등학교 불교학생회를 시작으로 대학생 때 이미 청소년 수련회 교사로 포교 현장에서 활동해 오다 보니 지역 정서를 잘 알고 있는 불교계 인재로 추천을 받아 시작한 일이었다.

그러나 사회복지에 전공하지 않았다는 한계에 부딪혔다. 그래서 사비를 털어 대학원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했고 상담 기본 과정부터 전문과정까지 10개가 넘는 자격증을 취득했다. 지금은 경남 지역에서 몇 손가락 안에 꼽히는 복지 현장 전문가가 됐다. 마산대학의 겸임교수로 생생한 복지 현장을 학생들에게 전달하고 있으며 여기저기서 특강을 요청받기도 한다.

지금도 복지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이제 곽 관장은 불교와 복지를 접목한 다양한 시도를 구상 중이다. 불교와 복지를 접목한 교양대학 개설도 그 시도 중 하나다. 복지 이론과 실천을 겸비한 자원봉사자를 양성하고 다양한 사회 변화, 정책변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인재를 양성하는 센터로 교양대학 설립을 구상 중이다.

또한 3년 뒤쯤으로 생각했던 복지관 별관 증축이 급속도로 늘어나버린 이용인원 때문에 발 등의 불이 났다. “여기가 바로 극락이라며 저의 손을 잡고 고마워하는 어르신들을 볼 때 보람과 기쁨을 느낀다”는 곽 관장은 “승가와 재가 역할을 분담해서 불교계의 발전을 위한 큰 틀을 짜고 실천할 수 있도록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 싶다”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현대불교 지사안내

- 부산지사 : (051)632-0064
-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 경남남부지구 : (011)571-5316
- 울산지사 : (052)272-0909

화합 및 실무행정 정보 교류

경남 울산 25개 불교복지협 관리자 연수회 개최



경남 울산 지역 25개 불교사회복지시설 관리자 10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불교복지발전을 위한 연수회를 가졌다(사진).

경남불교사회복지협의회(회장 호정) 주최로 8월 18일 19일 이틀 동안 하동청소년수련원에서 열린 관리자 연수회는 회원간의 화합은 물론 복지현장의 실무와 행정 전반에 대한 정보 교류의 장으로 마련됐다.

호정 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협의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함께 호흡하는 불교복지시설 관리자들이 한자리에 하게 됐길다”며 “이런 자리를 통해 업무능력을 더한층 배양해 중생의 안락과 이익을 위해 자비

를 베풀었던 부처님의 보살행을 현장에서 구현하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이날 연수회에서는 경남도청 김형근 보건복지여성국장의 ‘경남의 사회복지정책 설명’, 경남사회복지협의회 최재호 회장의 ‘사회복지와 경영’, 신라대 황성철 교수의 ‘사회복지 환경변화와 시설기관의 대응방안’, 금강노인복지관 곽인철 관장의 ‘노인복지와 노인수발보험의 이해’, 경남재가노인복지협회 강익숙 회장의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관리’ 등 실무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강의가 이어졌다.

이 밖에도 화합의 레크리에이션을 통해 불교복지시설의 연대감을 높였으며 시설 수범사례 발표, 연수 소감 발표로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하기도 했다.

경남불교사회복지협의회는 2005년 창립법회를 가진 경남 지역 불교사회복지시설 협의체로 25개 시설이 가입돼 있다. 가입 시설간의 유대와 실질적인 업무 협력이나 교류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실무자협의회(회장 오기원)도 별도로 구성해 놓고 있다.

천미희 기자

부산파라미타 10주년 예술제

파라미타부산청소년연합회(총재 대상)는 9월 9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KBS 공개홀에서 제10주년 예술제를 개최한다.

“맑은 세상을 청소년에게”라는 주제로 부산시내 파라미타 청소년 및 중,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열리는 이번 예술제는 청소년지도자, 청소년회원 등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파라미타부산청소년연합회가 창립 10주년을 기념하고, 그동안 각 분회에서 갖고 있었던 기량을 마음껏 뽐내는 자리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천미희 기자

윤영석 서예展 ‘산사의 이바구’

윤영석 서예전 ‘산사의 이바구’가 9월 2일부터 15일까지 장 갤러리에서 열린다.

윤영석의 작품 세계는 서예를 넘어 현대화, 추상화 같은 느낌을 주며 회화와 조각을 서예와 접목한 시도가 돋보인다. 그는 평이다.

대구예술대학교 서예학과 강사, 종국 섬서 진중대학교 서법과 객좌교수, 담양은샘의 서예원 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윤영석은 대한민국의학대전 서예부분 특선 등 입상 경력도 다양하다. (051)803-6797

천미희 기자

성타 스님 ‘자연으로의 회귀’展



그림으로 어린이 포교를 실천해 온 호산당 성타 스님의 ‘자연으로의 회귀’ 전시회가 8월 21일부터 26일까지 부산시청 갤러리에서 열렸다.

21일 개막식(사진)에서 영주암 조실 정관 스님은 “우연히 소식을 듣고 전시회를 찾았는데 그림이 너무 아름다워 환희심이 생겼다”며 “수행자에게는 그림 또한 수행의 방편이 되니 그림 속에서 수행자의 힘을 잃는 세심함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타 스님의 ‘자연으로 회귀전’에는 국전에서 특선을 차지한 작품을 비롯해 심연, 만행, 청향 등 80여 점의 그림이 전시돼 있다.

성타스님은 서예, 한글, 사군자 무료 강습 등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포교해 왔다.

이은아 기자

청주 보현사 명부전·정토원(남골당) 낙성법회 및 산사음악회

청주 보현사 명부전·정토원(남골당) 낙성법회 및 산사음악회

부처님의 가피와 사부대중의 원력으로 그동안의 불사가 원만 회향되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모아 모두가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사오니 참석하시어 기쁘게 나누시기 바랍니다.

보현사 주지 원봉 합장



- 일시 : 2006년 9월21일 (음, 윤7월29일) 11시
 - 내용 : 1부 낙성법회 / 10시부터
2부 영산재 시연 / 오후2시 - 5시까지
3부 산사음악회 / 오후6시 - 오후8시30분까지
- 보현사 대웅전 앞
- 문의 : 보현사 043)259-4926

제4회 대성사 산사음악회 및 선남선녀 템플스테이

소중한 인연에 감사하며,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자리를 만들어 갑니다. 만남을 통해 서로의 인연을 확인하고 그 인연을 이어가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입니다.



- 일시 : 2006년 9월23일 오후 6시 ~24일 오전 10 까지
 - 일정 : 1. 산사음악회 / 23일 18시30분-
2. 선남선녀 인연맺기 템플스테이
23일 22시00분 - 9월24일 10시
 - 출연 : • 티벳스님 전통불교 의식 (8명의 티벳 스님 뿌자 공연)
• 가수 박정석 (천년바위) • 가수 최은혜 (전국 유명 노래가사)
• 가수 고루맨드 (유명 가-타 리스트)
• 가수 이정원 (소속새 우는밤)
• 불교 합창단, 전국 선남선녀 회원의 장기자랑
- * 청주불교방송 제작 예절스님 법문집 타이머CD 전국 불교서점 판매
- 문의 : 대성사 043)732-5560 헤철스님

제3회 참된삶 실천운동 석문사 자비원 경로잔치

제3회 참된삶 실천운동 석문사 자비원 경로잔치

호국불교효예중 석문사는 청원군 관내 어르신들을 모시고 아래의 내용으로 경로잔치를 봉행합니다. 오늘의 행복한 사회를 이루기위해 평생을 바치신 어르신들의 노고에 감사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석문사 주지 혜천 합장



- 행사명 : 제3회 참된삶 실천운동 석문사 자비원 경로잔치
- 예상 인원 : 관내 어르신 1천여명
- 일시 : 2006년 9월16일 오전 10시
- 장소 : 청원군 남이면 사무소 광장
- 내용 : 봉행식 / 위안잔치 - 사물놀이, 국악마당, 노래공연, 북공연, 경로노래자랑 등
- 문의 : 석문사 043)264-3008